

화가 장옥진, 그가 말했다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과장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평의원

박에스더

내 직장인 전주고용센터는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직장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인 차량 때문에 직원들은 자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나는 교육회관의 주차장을 자주 애용한다. 직장까지 걸어서 약 5분 정도 되는 근거리이고 아침 출근 시간에 여유 공간이 많아 사용하기 편리하다.

직장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인근에 초등학교, 교육청 등이 있어 오고가는 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간다. 그중 유난히 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 나보다 약간 연상으로 긴 머리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 틀어 올리고, 무릎까지 오는 까만 플레어 치마에 하얀 반팔 블라우스 차림으로, 슬리퍼 샌들을 신고서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빠른 걸음으로 스쳐 교육회관 쪽으로 들어가곤 했다. 흔히 말하듯 젊을 적에는 상당히 미인이라는 평을 받았을 것 같은 자그마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형이다. ‘저 옷차림으로 보면 교육회관에서 춤을 추거나 가르치는 사람 같구나. 저 큰 가방에는 무용복이 들어있겠지’ 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무용수를 상상하고는 막연한 호감을 가진 것이다.

11월 꽤 추운 어느 날, 사무실 추위에 떨기 싫어 내의를 챙겨 입고 출근 중 마주친 그녀를 보고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썩에도 그녀는 여전히 반팔 블라우스에, 스타킹도 신지 않은 맨 다리를 드러내고서 가는 것이 아닌가. 헐! 저이는 어쩔 제정신이 아닐까?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 무용수 코스프레*를 하는 걸까? 그래, 내가 여러 번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며칠 후 지인과 만나 이러저런 일상에 대해 수다를 떨던 중 그 무용수 코스프레녀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진행되었다. 나의 느낌을 전하다가 급기야 “어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지도 모

르겠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반팔로 다니다니, 쫓쫓” 하고야 말았다. 말하면서 웬지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 뭔가 독한 한마디를 뱉어 버린 듯한 개운치 못한 감이 있었다.

이제 내 나이도 원을 넘어서었다. 어쩔 세월은 이리도 빠른지, 두 갈래로 뿔은 머리의 여고생이던 때가 없그제만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체질이 변한다는 선배들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는데 내게도 그 갱년기가 찾아왔다. 갱년기 증상의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열이 화악 오르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하의 기온임에도 집안에서 나 혼자 반팔셔츠를 입고 생활하기도 한다. 남편과 딸아이는 추워추워하는데 말이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겨울날, 예의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이번에는 얇은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다리에는 까만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아차! 어쩔 저이는 나처럼 몸에 열이 나는 증상으로 인해 추워 보일 정도의 가벼운 옷차림을 할 수 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오는 느낌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지레 규정해버린 나의 선부른 판단이 부끄러웠다. 그녀에게 사과도 할 수 없는데.

어쩌면 난 늘상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해왔는지 모르겠다. 혼자 지레 짐작하여 화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럼으로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서늘하게 만들었을까.

출근길 FM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화가 장옥진 그가 말했다. 사물을 데면데면*하게 보지마라. 사물을 친절하게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가 끼어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화가인 그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나 보다.

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사람을 데면데면하게 보지 말자. 그를 둘러싼 배경, 정황 등을 친절하게 보자. 그래야 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

* 코스프레 :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

* 데면데면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감이 없이 예사로운 모양. 성질이 껌 껌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

| 연구원 소식 |

2014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2.14)

운영위원회가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변주승, 이미경, 최우영, 하태진, 한명수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2014년도 뉴스레터 필진 구성, 문화강좌 강사진 선정 및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제안 및 계획·준비를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문화강좌는 4번 열기로 하였으며, 전년도는 역사를 주제로 하였다면 금년의 주제는 문학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경청 부탁드립니다.

2014년 문화강좌 강사진

월일	강 사	주 제
04.26 (토)	심옥숙 박사 (광주 무등지성)	카프카의 변신 -가족이라는 이상하고 위험한 관계-
05.24 (토)	이정옥 교수 (고려대 강사, 일문학)	일본과 춘향전
09.27 (토)	김명희 교수 (전남대 강사, 중문학)	절망에 대한 향전 -루쉰의 〈광인일기〉와 〈아Q정전〉-
10.25 (토)	박병훈 박사	신채호 선생의 단군관 변화

2014년 뉴스레터 필진

월	필 진	월	필 진
01	임미연 실장	07	이정옥 회원
02	이동학 실장	08	강영식 이사
03	박에스더 회원	09	이향배 교수
04	김병문 이사장	10	강지혜 회원
05	이영규 감사	11	황지호 회원
06	김경수 이사	12	김진소 신부님



201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사업 신청

2013년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우리 역사와 독도문화강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4년도는 지난 사업의 기틀을 기반으로 보다 확장된 문화서비스 개념을 적용 ‘찾아가는 독도 교육 및 독도박물관’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깊이있고 실제 함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원하며 동해 독도 관련 국내외 시민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신년 번개 모임 (2.14)

2014년도 연구원 번개모임을 가졌습니다. 변주승 부원장, 왕기석·홍성덕 이사, 한명수·최우영·하태진·이미경 운영위원, 김천식 전임연구원, 박에스더 평의원, 김정석·양미영·박해숙·임미연·김남경 회원, 이동학 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막걸리와 어우러진 소리와 서로에게 새해 덕담을 나누는 활기차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패 전달 (2.14)

저희 연구원의 운영위원 모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미경님과 연구원을 떠나는 임미연님에게 최선을 다한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원 소식

저희 연구원의 운영위원인 이미경님이 보건학 박사(예술치료전공)를, 회원인 변장섭님은 도시개발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더불어 김남경, 박수현 회원이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에 합격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며 일취월장하기를 바랍니다.



변장섭 회원



박수현, 김남경 회원(가운데)